

해외 진출 시 분쟁 예방과 대응 –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및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

변호사 조정민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



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?

- 계약상 지위가 약한 경우 (우리가 乙인 경우)에 필요하다.
- 불리한 계약서보다는 계약서가 없는 것이 낫다.
- 책임을 피할 여지가 있다.

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?

- 계약상 지위가 강한 경우 (우리가 甲인 경우)에도 필요하다.
- 불리하더라도 계약서가 있는 것이 낫다. (명확성, 예측가능성)
- 분쟁을 줄일 수 있다.

전문(Preamble)

- 전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. 따라서 전문은 양보하고 본문의 조항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.
- 전문도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.
- 전문의 기재는 목적, 의도, 배경은 계약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.
- 특히 분쟁 시 전문이 많이 활용됨.
- ‘원칙적으로’, ‘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’ → 본문 조항 해석에 중대한 영향.
- 정확한지 확인하고 가능한 간단하게 작성하자.

역할/리스크 배분

- 계약의 중요한 목적은 당사자 간 리스크의 배분임
-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
- 제품의 허가 등록을 어느 당사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할 것인지
- 제품의 안전 문제,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어느 당사자가 질 것인지

IV. 계약 기간 및 해지

자동갱신 조항

- 장기계약이 보장되지 않아 불리하다?
- 불리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있다. (장기계약 + 해지 옵션보다 계약 종료에 유리)
- 좋은 계약상대방과는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.

해지

- 계약서에 해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나? (계약서 조항이 없어도 법률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지 않나?)
- 계약해지에 관한 현지 법률이 불명확할 수 있다. 현지 법원이 법률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. (중대한 위반/사소한 위반; **Force Majeure**)
- 현지 제품 허가 등록 등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선결조건의 이행 시점을 특정하고 경과 시 책임 없는 해지 조항 필요.

손해배상

- 손해배상 의무/금액을 명시해야 하나? (결끄러운 사항인데 문제 발생 시 법률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?)
- 불명확한 현지 법률/비우호적인 현지 법원의 불리한 판단 위험 제거를 위해 필요
- 계약 상대방의 부당한 면제/감액 요구를 피할 수 있음.
- 위약벌/손해배상액 예정

초안 보관

- 계약서는 최종본만 보관하면 된다? (계약으로 확정된 것은 최종본, **entire agreement**, 자료 관리 부담)
- 계약에 이르게 된 과정,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. (최종 문구에 나타나지 않은 당사자들의 의사 확인)
- 번복할 수는 없으나, 보충할 수는 있다.

감사합니다